



연장 접전...충암, 세광 꺾고 8강 합류

무등기 2연패에 도전했던 개성고가 대회 16강전에서 경북고에 콜드게임패를 당했다. 충암고는 연장 승부차기 끝에 8강에 합류했고, 경기고와 경동고는 각각 아탑고와 안산공고를 꺾고 8강에 올랐다.

충암고 6-3 세광고

충암고가 17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제17회 무등기 전국고교야구대회 16강전에서 연장승부차기 접전 끝에 세광고를 6-3으로 물리쳤다.

5회 1사에서 충암고의 지명타자 김경호가 팀의 첫 안타를 때려냈다. 류지혁의 볼넷으로 1사 1·2루, 강병의가 좌중간을 꿰뚫는 적시타를 때려내며 2타점을 올렸다.

6회말 선두타자로 나온 세광고 전명현이 우익수 키를 넘기는 3루타로 분위기가 반전에 나섰다. 권상웅의 볼넷으로 만든 무사 1·3루

있던 경동고 투수 김성현이 5회초 선두타자 모상영에게 2루타를 맞았다. 5번 염은호를 투수 앞 땅볼로 잡아냈지만 최준영의 중전 안타가 터지면서 김성현이 먼저 실점을 했다.

5회까지 무실점의 투구를 선보이던 안산공고 선발 김규대가 무너졌다. 6회말 경동고의 선두타자 이형주를 시작으로 선세원·이동근의 연속안타가 나오면서 1-1. 2루주자 선세원이 3루 도루에 성공하면서 무사 1·3루가 됐고, 4번 김민재의 빗맞은 타구가 유격수 키를 살짝 넘어가면서 역전주자가 홈에 들어왔다.

안산공고가 김성재로 투수를 교체한 뒤 더블플레이로 투 아웃을 잡았지만 3루수 김용희가 송진현의 땅볼을 악송구하면서 경동고의 세 번째 주자가 홈을 밟았다.

7회 2사에서 경동고 이형주가 중전안타로 출루한 뒤 도루에 성공했다. 2번 선세원의 적시타가 나오면서 점수는 4-1이 됐다.

8회에는 선두타자로 나선 이동근이 좌측

투수의 악송구가 나온 사이 박동현이 홈을 밟으면서 2-0. 이어진 2사 3루 상황에서 정창래가 2루타로 주자를 불러들이며 3-0을 만들었다.

5회초 아탑고가 변만후의 볼넷과 고훈현의 좌전 안타로 만든 1사 1·3루에서 이현재의 희생플라이를 더해 1점을 만회했다.

아탑고가 1-4로 뒤지던 8회말 마지막 반격에 나섰다.

8회 강구성과 정진철의 연속 안타가 나오면서 무사 1·2루. 정인석이 몸에 맞는 볼로 나가면서 만루가 됐고 김성민의 밀어내기 볼넷이 나오면서 2-4가 됐다. 김준혁의 내야안타로 아탑고가 1점차까지 따라 붙었지만 2사 만루에서 2루주자 김성민이 주루사를 당하면서 승부를 뒤집는 데는 실패했다.

개성고 1-9 경북고

무등기 2연패에 도전했던 개성고가 경북고에 1-8, 7회 콜드게임패를 당했다.

1회부터 경북고 타선이 폭발했다.

경북고 2번 타자 한동욱이 내야안타로 출



내가 더 빨랐지

17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제17회 무등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안산공고와 경동고의 경기. 안산공고의 5회초 공격 1사 2루에서 최준영의 중전안타로 2루 주자 모상영이 홈까지 질주하고 있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경북고, 지난대회 우승팀 개성고에 7회 콜드게임승

야탑고, 실책 3개 저지르며 자멸 경기고에 3-4 석패

경동고, 에이스 김성현 호투...안산공고 돌풍 잠재워

에서 최승규의 희생번트가 성공하면서 세광고가 첫 득점에 성공했다. 세광고는 이어진 송성근의 희생플라이로 2-2 동점을 만들었다.

7회 충암고가 조영재의 안타를 시작으로 연속 3안타로 1점을 달아냈지만 8회말 투수 최현진이 난조를 보이며 밀어내기 볼넷으로 다시 동점을 허용했다.

3-3으로 9회까지 승부를 가리지 못한 두 팀은 연장 승부차기에 들어갔다.

류지혁의 희생번트 1사 2·3루를 만든 충암고는 강병의가 고의사구로 걸어나가면서 만루의 기회를 잡았다. 조성진의 싸늘이 3루타가 터지면서 충암고가 3점을 쓸어들었다. 이어진 10회말 세광고가 추가 득점에 실패하면서 경기는 6-3 충암고의 승리로 끝났다.

안산공고 1-5 경동고

경동고가 안산공고의 돌풍을 잠재우고 8강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경기 초반 안산공고 김규대와 경동고 김성현 두 언더투수의 기싸움이 전개됐다.

4회까지 삼자범퇴로 안산공고 타선을 막

담장 넘어가는 솔로포를 쏘아올리며 경동고 승리에 쐬기를 박았다. 대회 4호 홈런.

9회까지 마운드를 지킨 경동고 투수 김성현은 8피안타 2사구 5탈삼진 1실점의 호투로 대회 두 번째 완투승을 장식했다.

대회 1회전에서 화순고를 제압했던 안산공고는 김성현의 벽을 넘지 못하고 8강 진출에 실패했다.

아탑고 3-4 경기고

경기고가 야탑고를 4-3으로 누르고 8강에 합류했다. 야탑고는 3개의 실책을 저지르며 1점차로 석패했다.

2회 경기고가 선취득점에 성공했다.

2회말 1사에서 황필선이 1루수 실책으로 출루했다. 도루에 이어 포수 송구 실책으로 3루까지 진루한 황필선이 조재형의 투수 앞 땅볼 때 홈에 들어오다 협살에 걸려 아웃됐지만 그사이 타자 주자 조재형이 2루까지 진루했다. 박동현의 적시타가 나오면서 경기고가 선취점을 올렸다.

4회에도 야탑고의 실책이 나왔다.

4회말 볼넷으로 나간 경기고 박동현이 도루에 성공했다. 조재형의 땅볼을 처리하던 2

루한 뒤 이상하의 2루타가 터지면서 경북고가 선취점을 기록했다. 세 타자 연속안타가 이어지면서 3점을 더한 경북고는 박승무의 땅볼로 4-0까지 달아났다.

2회초 개성고가 노관현의 3루타에 힘입어 무사 3루의 반격 기회를 잡았지만 이두희의 2루수 앞 땅볼로 1점을 만회하는데 그쳤다.

2회말에도 경북고의 안타 행진이 이어졌다. 2사에서 한동욱·이상하·전형근이 안타를 몰아치면서 6-1을 만들었다. 4회에는 선두타자 권현규가 우중간을 가르는 3루타로 출루한 뒤 이상하의 희생플라이에 홈에 들어왔다.

경북고가 7-1의 리드를 이어가던 7회말 콜드게임을 확정짓는 한방이 터져 나왔다. 전형근·이상하가 3루수 앞 땅볼로 몰려났지만 6번 김운동이 좌측담장 넘어가는 솔로포로 8-1을 만들며 경기를 마무리 했다.

경북고 선발 백승준은 7회까지 2피안타 2사구 6탈삼진 1실점의 호투를 기록하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하늘을 찌르는 기쁨

충암고와 세광고의 경기에서 충암고의 승부차기10회초 공격. 2사 만루에서 조성진이 우중간 3루타를 터뜨리자 덕아웃에 있던 선수들이 기뻐하고 있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나지완 이틀 연속 결승포...KIA 4연승

최희섭도 7회 쐬기포...KIA 한화에 7-6 승 단독 3위

한국시리즈 시리즈의 사나이 KIA 나지완이 이틀 연속 결승포를 쏘아 올렸다.

나지완은 17일 대전구장에서 열린 2010 CJ 마구마구 프로야구 한화와 방분경기에서 4-5로 뒤진 6회초 허유강의 높은 직구를 그대로 때려 중앙 펜스를 넘기는 2점 홈런을 쳤다.

나지완의 홈런에 이어 7회에는 최희섭이 1점 홈런으로 쐬기를 박으면서 KIA는 한화를 7-6으로 꺾고 패조의 4연승 행진을 펼쳤다.

넥센은 목동 홈경기서 SK를 11-4로 크게 물리치고 탈꼴찌에 성공했다. 넥센은 반 경기차로 한화에 앞질러 지난달 23일 이후 27

일 만에 탈꼴찌에 성공했다.

이날 경기는 한국과 아르헨티나 월드컵축구 때문에 평소보다 2시간 앞당겨진 오후 4시30분에 시작했다.

KIA는 이날 선발 타자가 모두 안타를 때려 화력 싸움에서 한화를 이겼다.

KIA는 4회 김상훈의 솔로 홈런을 시작으로 나지완, 최희섭의 홈런으로 승부를 갈랐다.

한화는 4회 송광민의 1점 홈런과 홈런 선두 최진행의 5회 2점 홈런(시즌 19호)으로 5-4로 앞서 나갔다.

그러자 전날 한화와 경기에서 에이스 류현진에게 결승 홈런을 뽑아 버린 나지완이

또 한 번 장타력을 과시했다.

유원상에 이어 마운드에 오른 허유강을 상대로 2점 홈런을 때리면서 6-5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KIA가 7회 최희섭의 솔로 홈런으로 한 점 더 달아났으나 한화에 마지막까지 끈질기게 따라붙었다.

한화는 8회말 1사 1·2루에서 장성호가 우중간을 가르는 적시타를 때리면서 7-6 한 점 차까지 따라붙었다.

그러나 확장철 대신 구원등판한 유동훈이 4번 타자 최진행을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웠고 5번 김태완도 유격수 땅볼로 잡아내면서 위기를 넘겨 KIA의 승리를 지켰다. 나지

완은 2점 홈런을 포함해 3타수 2안타를 치면서 타점과 득점을 두 개씩 올렸다.

한편 목동구장에서는 넥센이 선발투수 금민철의 7%이닝 3실점 호투와 타선의 응집력을 앞세워 SK에 11-4로 대승했다.

넥센은 2-2 동점인 4회말 볼넷 2개와 안타 4개가 연속으로 터지면서 단숨에 4점을 달아냈다.

넥센은 5회에도 선두타자 강병식의 중전안타와 유한준의 볼넷 후 클라이 좌중간을 꿰뚫는 2루타를 때리면서 타점을 하나 더했다.

계속된 2사 2·3루에서 강규태가 좌중간 앞에 떨어지는 안타를 쳐 주자를 9-2로 달아내며 승부에 쐬기를 박았다.

SK 이호준은 4회 2점, 6회 1점 연타석 홈런을 쏘아 올렸으나 팀의 패배로 빛이 바랬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무등기 스타

4타수 4안타 3도루 '중형무진'

경동고 선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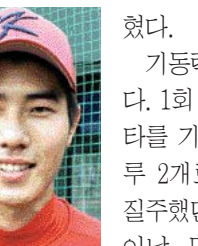
“경기전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서 플레이에 집중할 게 좋은 결과로 이어졌 습니다.”

경동고의 내야수 선세원(18·우투우타)이 안산공고와의 16강 경기에서 4타수 4안타 1타점 1득점을 기록하며 맹활약했다.

2루수 겸 2번 타자로 선발 출전한 선세원은 안정된 수비력을 바탕으로 한 호수비로 안산공고의 공격을 봉쇄하며 김성현의 완투승도 이끌었다.

선세원은 “앞선 대회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경기전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서 마음을 가다듬었다”

“선구안을 보완해 우리나라 대표 타자로 성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도루를 기록하며 안산공고 마운드를 흔들었다.

선세원은 “팀원들 모두 무등기를 위해 살이 빠질 정도로 많은 준비를 했다. 다른 목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팀이 끝까지 좋은 경기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유일한 목표다”고 말했다.

롯데 자이언츠 홍성흔의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플레이를 좋아하는 선세원은 “선구안을 보완해 우리나라 대표 타자로 성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